

치 사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의미를 더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의 대북통일사업기구로, 지난 2000년 첫발을 내딛은 이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4년이라는 연륜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부산을 첫 지역조직으로 발족하는 것을 계기로 전국의 지역본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민추본은 창립초기에는 북녘 동포들의 어려움부터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남북불교도 합동 법회, 북녘사찰 단청지원사업,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오랜 시간 단절되어 온 남북의 불교도들이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자는 의미를 선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추본이 추구하는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본이며, 그 초석을 놓아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되어 있어 안타까움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공존과 상생의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니며 자존심을 내세울 문제도 아닙니다. 비단 남북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사회 각계각층,

그리고 각 분야에서 공존과 상생의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추구해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이면 분단의 세월도 70년입니다. 오랜 단절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서로가 어루만지고 씻어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민족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은 아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옛말이 있듯이 분단 70년을 마주한 남과 북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로를 자극하여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헤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속히 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부산지역 본부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주실 심산스님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 지혜로움과 자비로움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2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총재

자 승